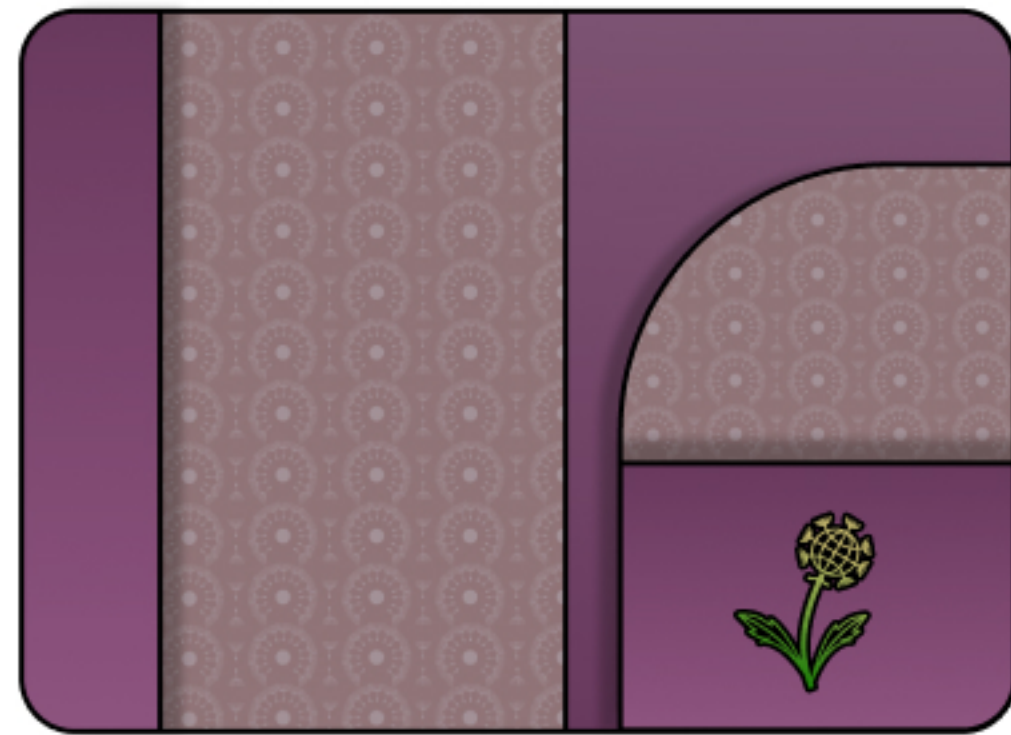




<커버>



<커버 겉면>



<커버 안면>

분 류

☐ 액세서리 ☐ 공예품 ☐ 그림/소장품 ☒ 패션잡화 ☐ 의류 ☐ 생활소품
☐ 문구사무 ☐ 기타

작 품 명

우리를 감싸는 것 - 모두를 위한 여

작품크기

접었을 때 9.5cmX13.5cm (펼쳤을 때 19cmX13.5)

작품설명

1. 모두를 위한 여권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이라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서로의 국적도 다르지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앞으로의 꿈을 키우며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자아가 생겨난 순간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꺼내 드는 것은 여권입니다.

여권은 체류 자격을 증명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국과 각종 행정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여권은 단순히 여행용 문서가 아닌 필수이며 언제나 자신의 국적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현실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로 생각하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여권을 펼치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삶보다 먼저 국적을 바라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한 사람을 국적으로만 규정하는 시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권의 여권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데도 사회는 종종 여권이라는 네모칸 안에 사람을 가두어버립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권 자체를 바꾸려거나 서로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여권을 감싸는 마음만큼은 모두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굿즈는 '여권 케이스'입니다.

여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권을 감싸는 케이스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겉으로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여권을 보호하는 물건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굿즈입니다. 이 굿즈는 여권을 감싸는 물건인 동시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감싸는 상징이 되고자 합니다.

2. 서로 다른 여권, 하나의 조각보

디자인은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형태는 한국의 전통 조각보에서 착안했습니다. 조각보는 각 조각의 크기와 색, 무늬가 모두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한 채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많은 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은 조각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각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각 안에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을 대표하는 전통 문양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두 나라의 문양은 서로 다른 조각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디자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색상도 기존 여권처럼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색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색을 조화롭게 재구성하여 서로 다른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색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이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의 완성된 패턴을 만듭니다.

이처럼 케이스의 바깥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를 표현하고, 그 안에는 각자의 서로 다른 여권이 담깁니다. 겉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안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상징하며 '다름을 감싸는 공존'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하나의 굿즈 안에 담아냈습니다.

3. 민들레 홀씨,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상징

케이스 로고와 내면은 민들레 홀씨에서 착안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해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뿌리를 내립니다. 이는 이주의 과정을 상징하면서도 단순히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보다 지금 어디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구를 닮은 민들레 홀씨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민들레 홀씨 로고는 케이스의 앞면을 대표하고, 안면에 문양으로 상징했습니다. 조각보 패턴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한다면, 민들레 홀씨는 그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상징하며 굿즈 전체의 의미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이 작품은 국적의 차이를 없애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역사와 정체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건 국적이라는 정보가 한 사람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권은 우리의 국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가지는 꿈과 정체성, 노력과 삶까지는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4.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로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디자인은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배경 청년들은 각기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고 같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이 여권 케이스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굿즈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굿즈입니다. 사용하는 여권은 달라도, 그 여권을 감싸는 존중의 의미만큼은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의 문구를 여권 케이스 뒷면에 새겼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어디에 내려앉든 자신의 뿌리를 내리듯, 우리 역시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살아왔지만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여권에 적힌 국가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이름과 삶을 먼저 바라보는 사회입니다.